



# CHINA WATCHING

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 
Ajou China Policy Institute  
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

2020. 05. 11 <제28호>

## 코로나19(COVID-19) 이후 세계경제와 미중전략경쟁

이왕희,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

### 정책 제언

####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모두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Plan B를 세워야 함

-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리 진정되지 않아 경기순환이 V자형이나 U자형보다는 L자형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
-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함
- 세계적 차원의 공급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함

#### 미중 갈등의 소강상태를 활용하여 양자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

-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았던 대치 국면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양상임.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부담으로 양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
- 미국과는 한미동맹(방위비 분담금) 및 인도·태평양전략, 중국과는 사드 사태 이후 갈등을 해소해야 함
-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중 갈등(예를 들어 WHO 논란)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

####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

-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음
-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공유해야 함
- 위기 대처 경험을 국제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에서 보건외교 부문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
-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국제사회 공간에서 Online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외교 공간을 확대해야 함

미중 갈등의 소강상태를 활용하여 양자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

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국제사회 공간에서 Online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외교 공간을 확대해야 함

## 문제제기

### 1. 코로나19 사태 수습 비교

**확진자 수 및 발생률(100만 명당)을 보면 시진핑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코로나19 사태에 훨씬 더 잘 대응을 하였음**

- 통계 집계 기준과 방식의 차이는 물론 중국 통계의 오류를 감하더라도,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사태를 수습하였음
  - » 발생률(인구 백만 명 당 확진자 수)은 중국이 미국의 약 2% 수준임
  - » 전 세계 확진자의 1/3, 사망자의 1/4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
  - » 4월 28일 미국 사망자 수(58,365명)가 1955-75년 베트남전쟁 전사자 수(58,220명)를 능가하였음
  - » 중국보다 한달 반 뒤에 미국에서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,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

국가	확진자	사망자	완치	사망(%)	완치(%)	발생률
미국	1,385,834	81,795	262,225	5.9	18.9	4,187
중국	82,919	4,633	78,175	5.6	94.3	58
한국	10,936	258	9,670	2.4	88.4	213

출처: 코로나19(COVID-19) 실시간상황판(<https://coronaboard.kr/>; 검색일: 2020.5.12.)

-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여 중국과 세계보건기구(WHO)를 비난하고 있음
  - »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WHO가 명명한 코로나19 대신 우한 바이러스/중국 바이러스를 고집하고 있음
  - »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하였음
  - »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WHO 분담금(연평균 4-5억 달러)의 지급을 동결하였음
  - »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자세를 위기의 책임을 중국 정부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간주하면서 WHO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였음
  - » 4월 24일 예정된 G20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WHO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, 중국은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회담을 무산시켰음

### 2.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결과

**미국이 중국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를 더 오래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함**

- 미국에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화되어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음
  - » 경제성장률이 2019년 4/4분기 2.1%에서 2020년 1/4분기 -4.8%로 대폭 하락하였음
  - » 2020년 2월 13일 29,423.31을 기록했던 다우존스가 3월 23일 18,591.93까지 폭락하였음(4월 30일 증가 24,345.72)
  - » 위기 발생 한 달 만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천만 명으로 넘어 1월에 3.5%였던 실업률이 1월 4월 4.4%로 급증하였으며, 5월에는 14.0%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
- 중국에서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
  - » 2020년 1/4분기 중국 경제는 -6.8% 성장하였음
  - » 주요 산업도시의 봉쇄로 많은 농민공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실업자 수도 정부가 공식 발표한 500만 명보다 최소 2~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됨
- 2020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, 올해 미국 경제는 작년 대비 8.2%, 중국 경제는 4.9%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 - » 내년 성장률 전망도 중국이 미국보다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
  - » 만약 이 예상이 그대로 실현된다면,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는 축소될 것임

국가	2019년	2020년	2021년	2020년~2019년
미국	2.3	-5.9	4.7	-8.2
중국	6.1	1.2	9.2	-4.9
한국	2	-1.2	3.4	-3.3

출처: IMF (<https://www.imf.org/en/Topics/imf-and-covid19>; 검색일: 2020.5.1)

중국보다 한달 반 뒤에 미국에서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,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

미국이 중국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를 더 오래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함

### 3. 미국 재정적자의 전략적 함의

**미국의 3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여, 향후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**

-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  - » 2/4분기 GDP 성장률 -12% (연 단위로 환산하면 -40%), 실업률 14%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4차에 걸친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부양책을 실시하였음
  - » CBO는 재정적자가 2019년 0.984조 달러 (GDP의 4.6%)에서 2020년 3.7조 달러(GDP의 17.9%), 2021년 2.1조 달러(GDP의 9.8%)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- 재정적자의 증가는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비중을 축소시키고 있음
  - » 현재까지 재정 부양책만으로도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19년 79%에서 2020년 101%, 2021년 108%로 증가할 것임
  - » CBO는 올 1월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순이자 지급이 올해 0.382조 달러에서 2030년에 0.819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
  - »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, 순이자 지급이 국방비(2020년 0.746조 달러)보다 더 커지게 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임
  - » GDP 대비 재정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,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, 그 결과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금 증액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

미국의 3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여, 향후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

### 4. 석유가격 폭락으로 에너지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

**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가격의 폭락은 미국의 에너지 우위(energy dominance)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**

- 셰일가스 혁명으로 석유 순수출국이 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우위를 통해 대전략의 재조정을 시도해 왔음
  - » 1975년 도입된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2015년 12월 해제되었으며 전략비축유 (총 6억8천700만 배럴, 일일 최대 배출량 145일 분)의 약 1/4 이상인 1억9천만 배럴을 2017년부터 매각하고 있음
  - » 그 결과 1948년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던 미국은 2018년 12월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음
  - » 1953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1차 에너지원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- 석유 가격의 폭락으로 석유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넘어가고 있음
  - »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로 세계적 차원에서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석유 사용량이 급속히 줄어들었음
  - » 석유생산량 감소 협상 결렬 이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공급량을 경쟁적으로 확대해왔음
  - » 트럼프 대통령의 주선으로 양국이 석유수출국기구(OPEC)와 함께 감산에 합의하였음
  - » 감산 규모가 수요 감소량보다 훨씬 적어서, 4월 2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(NYMEX)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(WTI)의 5월물 증가가 배럴당 -37.63달러로 폭락하였음
  - » 석유저장시설이 포화 상태 직전이기 때문에 대규모 감산이 없는 이상 다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- 생산량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셰일가스 업체가 도산하면 미국의 에너지 우위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
  - » 유가가 20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,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가 도산하여 미국은 석유수출국에서 다시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
  - » 그동안 미국은 석유 가격을 조작한다고 비판을 해왔던 OPEC 및 러시아와 협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, 석유시장에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손상되었음
  - » 감산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는 미국 에너지 안보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미러 관계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 - »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저유가 국면을 전략비축유를 증가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음

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가격의 폭락은 미국의 에너지 우위(energy dominance)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

## 5.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는 동안에 미중 무역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
미국과 중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

### 미국과 중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

-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수습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적극적인 공세를 할 수 없는 상황임
  - » 미국무역대표부(USTR)는 3월 12일 치료에 필수적인 중국산 의약품 등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를 발표하였음
  - » 재무부와 국토안전부는 3월 31일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수입 관세 지분을 90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
  - »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사슬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
-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월 15일 1차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
  - » 국무원은 2월 14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%에서 5%, 5%에서 2.5%로 각각 인하하였음
  - » 기업은 3월부터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과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(LNG)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구매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
  - » 금융당국은 금융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, 그 일환은 3월 27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합작사 지분을 51% 이상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였음
  - » 사법당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
- 향후 무역전쟁의 향방은 석유 가격 변동에 달려 있음
  - » 1차 합의안에 따라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500억 달러 석유, LNG 등을 구매해야 함
  - » 문제는 목표가 물량이 아니라 2017년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데 있음
  - » 현재 유가가 2017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, 합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구매량을 2배로 늘려야 함
  - »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비축시설이 부족할 경우 중국이 구매량을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음

## 6. 결론

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보다 양호한 외교·안보·경제 공간이 열리는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외교·경제정책이 필요함

###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 모두 피해를 받았으나, 미국의 피해가 중국의 피해보다 훨씬 큼

- 확진자 수 및 발생률(100만 명당)을 보면 시진핑 정부(82,858명/58)가 트럼프 행정부 (1,035,765명/3,129)보다 코로나19 사태에 훨씬 더 잘 대응을 하였음
- 미국의 하락폭(2019년 2.3%, 2020년 -5.9%)이 중국의 하락폭(2019년 6.1%, 2020년 1.2%)보다 더 커,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 것임

### 미국경제의 침체가 대외전략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

-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연방예산적자가 3.7조 달러, 국내총생산(GDP)대비 연방정부부채 비율이 101%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
- 역사적으로 이러한 비율은 세계대전의 참전으로 국방비가 급증했던 1910년대 및 1940년대보다 더 높은 수준임
- 2019년부터 미국 예산에서 국채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향후 국방비 증액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

### 석유가격의 폭락으로 미국의 에너지 우위(energy dominance)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
- 유가가 20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,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가 도산하여 미국은 석유수출국에서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
- 이렇게 되면, 미국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(LNG) 수출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은 지속가능할 수 없음

###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수습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확전보다는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됨

-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보다 양호한 외교·안보·경제 공간이 열리는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외교·경제정책이 필요함

발행처: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

발행인: 김흥규

편집인: 서민혜

주소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
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 
울곡관 527-2호  
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

전화: 031-219-3861

홈페이지: <http://cpi.ajou.ac.kr>

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·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